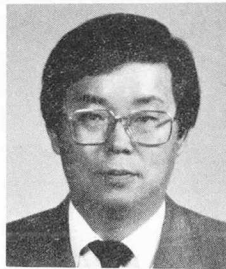


농축산업의 말살은

정권의 자살행위



김 동 균
(상지대학 축산학과 교수)

같은 한 해를 보낼지라도 십년 단위가 바뀔 때의 감회는 어딘지 색다르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십년전 이맘때쯤의 사회상은 새로운 '80년대를 맞게 된다는 희망찬 기대감보다 국가통치자의 사거와 함께 불안하고 뒤숭숭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회기류는 이듬해 축산업 전체를 불황의 늪으로 몰고 갔으며, 경기가 회복된 것은 사회가 안정된 그 다음해부터라고 기억된다.

그런데 다시 십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의 양상은 비록 원인은 다르지만 불투명하기는

그 때나 다를 바 없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과거처럼 수입장벽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해산업으로서의 죄값을 단단히 치러야 하는 추가 부담때문에 가히 생존의 마지막 벼랑에 서 있는 느낌마저 드는 상황인 것이다.

수입개방과 함께 정부가 밟아가고 있는 축산정책의 수순(手順)은 마치 암선고를 내린 환자에게 생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 처방을 내리고 있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당분간은 그래도 양축농가의 목소리가 살아 있고, 이 계층을 완전 외면하고 지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실존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산업을 축소 지향적으로 몰고 가거나 전업을 유도하여 구조적으로 수리할 의도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 국내 축산물 수요의 절대량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물량은 누구의 손

〈원고 도착순〉

에 의해서든지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축산인들은 이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 일을 남의 나라 농민에게 맡길 것인가? 이렇게 볼 때 90년대에 축산인들이 해결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

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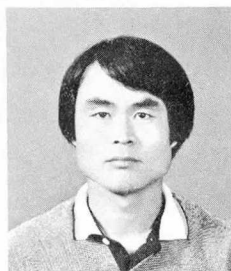
첫째, 축산인의 목소리를 합쳐 이 산업의 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실세를 형성해야만 달성될 수 있는 일이다.

둘째, 생산자는 생산비 절감과 경영체질의 강화를 위한 피

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수급조절을 위한 상호간 진지한 협조와 양보가 필요하다.

끝으로, 정책당국의 거시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농축산업의 말살은 정권의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수출산업으로 활로를 개척하길



박 호 근
(중원축육 부장)

역사의 한줄기로 문혀가는 1980년대의 양돈산업이 걸음마를 배우고 스스로 뛰어 다닐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면, '90년대 양돈산업은 보호자 없는 성인으로써 스스로 성장해야 하는 어려운 연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80년대의 고도산업 성장은

수출기간산업으로 촉진되어 일반산업은 고도의 성장을 하여 풍요를 누렸지만, 1차산업인 농축산업은 산업자체는 성장하였지만 부의 공유는 타산업에 편중되어 상대적 빈곤 및 생존권 확보 문제로 매우 어려운 연대로 마감되었다.

밝아오는 '90년대는 국내의 농축산품의 기반 정착 및 소득 보장 미흡에도 불구하고 8년후인 1997년 7월 1일부터는 279개 농축산품이 전면 수입개방된다고 하니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무엇보다 해야 할지 난감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

자유시장 경쟁체제라는 시장원리에 의해 타산업은 국가정책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외

국 수입상품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지만, 국가의 근본산업인 농축산업은 국가의 정책부재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수입 농축산품과 경쟁하기에는 그 기반이 너무나 미약하고 무너내려질 수 밖에 없어 취약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가정책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농축산품을 수출하는 나라와 같이 국가가 농민에게 부여하는 동등한 혜택을 바라고 싶은 심정뿐이다.

새해 '90년에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해 생산자 단체의 조직된 힘으로 정책을 건의하고, 국제화·개방화란 양돈산업의 위치에서 세계 양돈인을 상대로 하는 수출양돈산업으로 활

로를 개척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양돈인의 기술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국가에서 양돈인의 숙원정책을 해결

하고 여건만 마련하여 준다면 그간 심혈을 기울여 터전을 마련해온 종돈개량, 등급제 시행, 수출기반 확보로 어려운 여건

을 극복하고 활로를 개척할 수 있으며, 값 싸고 질 좋은 돈육생산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철저한 제품관리로 우수약품 공급기대



이 함 희
(<<주>동방 주임연구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990년도는 1인당 GNP가 5천20달러에 달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축산업은 미래 지향적 산업

으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소비위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돈육과잉 공급으로 인한 양돈 경기 침체 등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길은 각자 맡은바 역할을 굳은 의지와 인내로써 극복하는 것이다. 즉, 동물약품회사에서는 철저한 제품관리를 통해 우수약품을 양축가에게 공급하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대양축가 질병대책 서비스로써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또 양축가 스스로도 공부하는 자세로 새롭고 유익한 정보 등을 심분 활용, 양돈장 관리를 철저

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갈 길은 우리가 개척해야 한다. 보다 높은 곳에서 앞을 보는 시야를 키우자.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떤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보다는 남을 탓하고, 자신의 좁은 소견에 세상일들을 꿰맞추며,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는 커녕 결과만을 가지고 욕심만 내는 그러한 소인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또 그 소인이 나 자신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제 모두 훌훌 털고 앞을 향하자.

희망찬 축산선진의 해 1990년대가 밝았다. 우리 양돈인들이 앞장서서 길을 터놓자. 우리 양돈인들이 앞장서서 길을 갈고 닦자. 우리 양돈인들이 앞장서서 축산 미래를 앞당기자.*

특색있는 기술축적 이룩하길



엄 문 중

(아세아축산 기구상사 대표)

1990년대에는 양돈업이 정상적인 발전과 전국양돈인의 단합으로 한국양돈업의 중흥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양돈업의 발전과 중흥에 힘입어 축산기구업계의 발전과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전국양돈인의 단합방법으로는 각 시군단위 양돈협회 지부에서 발행하는 도축의뢰서가 없이는 도축장에서 도축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양돈인의 출하돈은 협회가 총괄하

고 도축의뢰서 1매당 얼마씩 회비로 수급 협회를 운영하면 많이 기르는 사람은 회비를 많이 내고 적게 기르는 사람은 적게 내어 공평하게 출하물량이 조절되어 도축장에서의 장기계류가 한순간에 해결될 것이다.

또한 그지역에서 양돈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지역 총회의 승낙을 얻어야만 되게 하고, 만일 이를 어기고 양돈을 하는 사람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사료를 그지역 회원이 쓰지 않으면 신설 양돈장은 규제 될 것이다.

이런 바탕에서 지역 스스로 실제를 파악하여 두수조절을 해 나가면 출하물량이 조절되므로 안심하고 양돈업을 경영할 수 있다.

양돈업이 안정을 이루면 중돈경신, 시설개축, 기술향상 등 부수적인 이익에 힘입어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노력과 투자로 이루어질 것이다.

비육돈의 출하문제로 서울에 지육경매시장을 육성하여 지방에서 도축 지육만을 서울 등 대도시로 출하게 되면 출하경비가 절반으로 줄게 된다. 현재 계산으로는 농장에서 지출되는

인건비가 충당 될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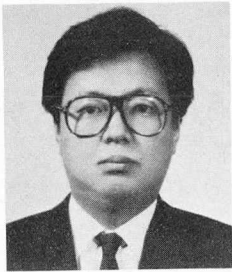
우리 양돈인이 단합이 안된다면 생업인 양돈에 필요한 부분에서 반드시 정당한 대우와 부당한 불이익의 배제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양돈기구 업계의 발전도 양돈업의 안정없이는 이루어질수 없으므로 서로가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무한한 노력과 연구로 발전하는 속도에 뒤지지 않고 앞서가는 기술개발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기구업계 스스로 새로 개발된 제품 기술은 보호 육성해주고 보다 나은 제품 생산에 노력하여 각자 특색있는 전문업체로써 기술축적이 되도록 보호 육성하고 더욱 품질이 고급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에는 불황이 없는 양돈의 시대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양돈업이 되기를 기원하며, 무한한 앞날의 발전과 희망을 이룰수 있도록 양돈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안심하고 양돈만을 할수있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거듭기원한다.*

수준높은 서비스가 선행되길



주 영 진

(제일제당<주> 사료기술관촉팀)

'80년대의 축산업은 국민경제의 성장과 함께 영세성에서 벗어나 양적·질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 특히 양돈산업은 크게 발전하여 전체 육류수요의 60% 이상을 공급하는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좋은 일만을 남기고 '80년대가 마무리되나 하였는데 역시 마무리는 시작보다 더 힘든 것인 것 같다. 연초에 육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킨 이상구 신드롬, 작년에도 계속된 노사간

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기 위축, 원화절상, 수출부진과 수입자유화에 의한 무역수지의 감소 및 근래에 보기 드문 경제성장 둔화 등이 소비를 위축시킨 악재(惡材)로 작용하였다. 또한 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은 불경기를 초래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수입쇠고기의 방출은 경기하락을 부채질하지 않았나 싶다.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90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매우 어둡기만 하다. 경기침체를 그냥 앉아서만 주시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겠다는 위기의식과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양돈산업도 이제는 국제적으로 경쟁하여야 할 때다. '87년부터 본격 수입되기 시작한 돈육통조림은 이미 국내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는 소시지의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기의식과 모두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열심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에 종사하는 각계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중 사료업계의 역할을 언급해 보면,

첫째, 무리한 가격할인이나 여신기일 연장보다는 양돈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 사양기술지도, 농장상황에 맞는 방역프로그램 설정, 경영분석 등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가 선행되어야 만이 국제화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국민 건강생활을 저해시키고, 돈육수출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항생제 잔류문제를 해결키 위해 양축가와 힘을 합쳐 사양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 시장도 냉동육에서 냉장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어 대만이나 구미국가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항생제 잔류문제를 없애는 사양프로그램의 개발 및 권장 등으로 돈육수출이 활발해진다면 경기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의 양적성장에 만족치 말고 이제는 질적으로도 양돈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자.*

양축농민의 뜻을 전달하는 모체가 되길



최종만
(축산신문 기자)

새해를 맞이하면서 축산업계는 희망보다는 근심이 앞서는 현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척이나 착잡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매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자신의 노력을 가미시키면서 희망과 기대에 찬 한해를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데, 유독히도 축산업 만큼은 이러한 생각조차 한다는 것이 지나간 이야기로 되어 버렸다.

특히 양돈업은 소시지를 비

롯한 개방의 문이 가속화 되고 있어 돼지값 폭락은 언제 그칠지 추측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때 신문기사 내용은 갈수록 축산인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는 보도로 일색되고 있어 이제는 신문을 펼쳐보기가 두렵다는 이야기를 들곤 한다.

따라서 양축농민들은 기사에 대한 반응이 예민해 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언론기관에서 정부발표나 다른 문제들은 재빠르고 신속히 보도하면서 1차산업 분야만큼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본래 기사에 대한 반응은 항상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교차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언론기관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양축농민들은 일반 언론기관에게 현재의 양축농가들의 상황을 전달해 줄 것을 강

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결론은 충분한 대변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1차산업에 관계되는 언론기관은 제3자적인 입장에 서서 보도하는 이런 자세는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1차산업 관련 언론기관만큼은 양축농민을 위해서라는 대명제하에 취재와 기획·분석 등이 뒤따라야 한다.

모든 산업이 전문화 시대로 급속도로 변해 가면서 언론도 전문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점차 소외받고 있는 1차산업분야를 제3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일반 언론기관에 거는 기대는 우리의 욕구만큼 전달되기에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1차산업 전문지가 이제는 국내 축산농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정책 등에 냉철한 시각을 바라보면서 양축농민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모체가 되어야 한다. 1차산업 전문지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질때 일반 언론기관에 영향을 미쳐 점차적으로 오늘의 축산문제를 좀더 이해하리라 믿는다.*